

## 유치원·초·중·고 4월 개학 현실화

교육부, 다시 2주일 연기 검토 ... 빠르면 오늘 발표  
문재인 대통령, 대구·경북 일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오는 23일로 예정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을 더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및 경북의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교육부도 추가 개학 연기 검토에 들어가면서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2·5·6·7·14면〉

15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노홍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면서 “개학 추가 연기 필요성에 대해 교육부, 질병관리본부와 논의를 하고 있다”며 “학부모가 개학을 준비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전국 학교 개학을 이달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하고, 이후 다시 23일로 2주일 더 미뤘다. 이후에도 소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코로나19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하는 등 감염 확산 우려가 사라지지 않자 교원과 학부모 단체는 개학 추가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달 9일 올라온 ‘개학을 4월로 연기하고 휴업단계를 3단계로 올려주세요’라는 청원은 1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10만명에 가깝게 동의의 연었다. 지난 13일 열린 유은혜 부총리와 17개 시·도 교육감과 영상회의에서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개학을 추가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르면 16일, 늦어도 17일까지 추가 개학 연기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개학을 4월 초로 2주간 일괄적으로 추가 연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비롯한 연간 학사일정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마련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3일까지 평일 기준 15일(3주일) 이내로 휴업하는 경우 학교들은 수업일수를 감축하지는 않고 대신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줄인다.

하지만 3월 30일이나 4월 초로 추가 연기되면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를 10% 범위에서 감축하게 된다. 감축은 학교장 재량이지만 대다수 학교가 수업일수를 줄일 것으로 관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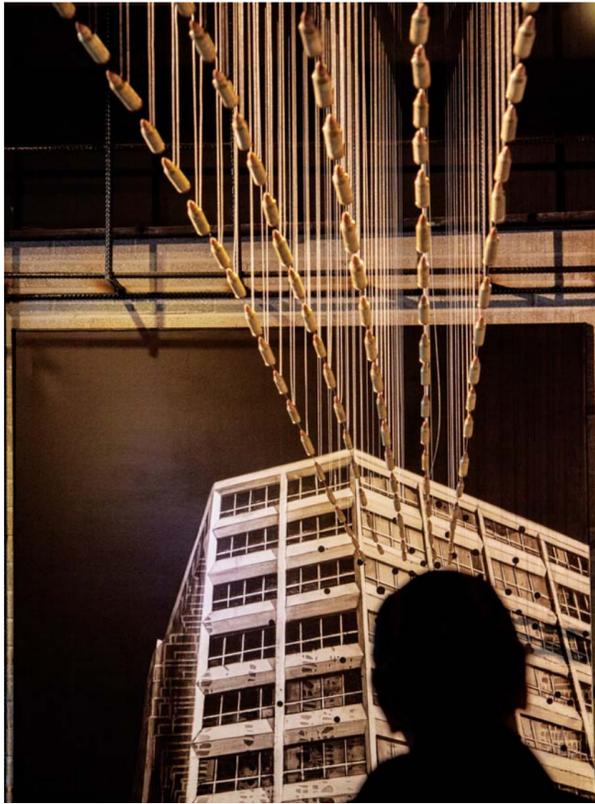
이와 관련 “사후 대책을 생각하면 어쨌든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 학교현장의 목소리다.

광주 지역 한 학교 교장은 “교육과정 운영, 대입 준비 등 고민해야 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며 “학원의 휴원 권고, 학교의 긴급돌봄 연장 등 아이들이 어떻게 챙길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초·중·고교생은 343명이며 이 가운데 311명은 아직 음압치료병상 등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위기의 ‘광주형 일자리’ 꼭 성공시켜야”



전일빌딩 10층에 ‘19800518’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하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일빌딩이 오는 4월 3일 시민 복합문화센터 ‘전일빌딩 245’로 단장돼 광주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다. 10층 ‘19800518’ 공간에 설치된 ‘검은하늘 그날’(정영향 작)과 ‘245개의 탄흔’(이혜경 작) 작품.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노동계 ‘투자유치 협약’ 파기에 지역사회 우려 목소리  
광주시 “진정성 가지고 합리적 해결 노력 계속하겠다”

광주 청년들에게 미래 일자리를 제공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노동계의 불참 선언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붕괴 직전에 놓인 상황에서, 노동계의 ‘투자유치 협약’ 파기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지역사회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선 사업 주체들이 지혜를 모으고 한 발짝씩 양보해 전국 대표 노사상생형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지난 1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맺은 ‘투자유치 협약’을 파기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광주각계가 참여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해 1월 30일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다.

광주시는 협약을 근거로 현대차, 광주은행 등이 주주로 참여하는 자본금 2300억원의 합작법인(주)광주글로벌모터스를 설립하고, 지난해 12월 광주구 빛그린국가산단에서 완성차 공장 착공식을 갖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노사 상생이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대주주인 현대차의 이익만 대변되고 있다”며 이날 투자유치 협약 파기를 결정했다.

노동계에선 “그동안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며, 최소한 적정

임금, 적정노동시간, 원·하청 체제 개혁, 노사 책임경영 구현 등 4대 의제만큼은 이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확고하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노사상생을 전제로 대응적인 양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노총은 17일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협약 파기 선언식을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이달말로 연기한 상태다.

노동계와 현대차가 보이지 않는 힘 겨루기에 들어가면서, 광주시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

시는 노동인권회관 건립과 노정협의회 사무국 설치, 시민자문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노동계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시는 최근 노동계측에 소통창구 마련을 위해 사회연대일자리특보와 노동협력관직 인사를 추천해달라고 했으나, 이마저도 거절 당했다.

시는 이날 ‘광주시 입장문’을 통해 “지역 노동계가 노사민정 합의 파기를 예고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모든 사업 주체가 노사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이라는 공통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믿고 있으며, 인내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합리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총선 한 달 앞 ... 민주당 독점이나 野 전제나

민주당, 공천 후유증 극복 과제  
민생당, 인물론으로 승부  
진보정당, 정당투표에 주력

4·15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18곳의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대 인물론’의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우선 민주당 후보들은 초강세의 당 지지율을 기반으로 승리를 일궈낸다는 입장

이다. 변수는 공천 후유증이다. 높은 지지율로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에 따른 과열 경선의 후유증이 심각하다. 광주·전남 지역구 곳곳에서 재심 신청이 이어졌고 신천지 논란 등 네거티브 경선 후폭풍은 당의 지지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광산 을과 여수 갑,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의 민주당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인위적으로 분구가 무산된 순천의 민심도 심상치 않다. 민주당은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경선 후유

증이 잠잠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변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중진 의원들과 현역 의원들이 포진한 민생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현역 프리미엄과 탄탄한 지지 기반을 토대로 수성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정치 신인들로는 호남 정치의 미래와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장담할 수 없다며 관록과 경험을 토대로 한 인물론으로 지역 민심의 전략적 선택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오만한 민주당 심

판’이라는 프레임과 함께 ‘독점보다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와 민주당 경선 후유증으로 투표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히고 있다. 정당 바람보다는 조직이 강세를 보일 수 있어 지역 기반이 탄탄한 후보들이 상당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과 민중당 등 진보 정당은 대부분 지역구에 출마자를 내고 진보적 성향인 광주·전남 지역 민심의 선택을 호소하는 한편, 비례대표 확보를 위해 정당 투표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지리산 작가’ 이병주 문학관 ▶18면  
KIA 타이거즈 오늘 귀국 ▶20면

촉촉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촉촉하게 레이어드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설화수 플레그스틴스토퍼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레그스틴스토퍼: 02-541-9270 ·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